

AIDS NEWS

5 ~ 6



정광모 명예회장이 한국여의사회 여의대상을 수상했다.

정광모 본회 명예회장, 여의대상 수상

제12회 한국여자의사회 여의대상 수상자로 소비자 운동 및 에이즈예방운동에 헌신해 온 정광모 본회 명예회장이 선정됐다.

정 명예회장은 20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6회 한국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이 상을 수상하고 상금 500만원을 본회에 기증하였다.

한국일보 기자출신으로 70년대 소비자운동에 투신해 이름을 날린 정광모 명예회장은 80년대에는 금연운동, 90년대에는 에이즈 예방에 헌신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96년부터 올 2월까지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에이즈 예방활동 및 교육사업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고 에이즈의 확산을 막았으며, 데이즈 감염자를 위한 쉼터 운영,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켜 왔다. 2001년 12월에는 에이즈 예방 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한국에이즈예방재단을 발족하고 총재직을 맡고 있다.

에이즈 예방, 관리 위한 워크숍

본회 부산광역시회, 경상남도회는 3월 22일, 23일 이틀간 에이즈 예방과 관리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양산시대동건강랜드에서 열린 이 행사는 주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부산 지역 에이즈 예방활동과 교육대책, 감염인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쉼터 활성화 방

안에 대한 강의와 발표, 토의로 진행되었다.

에이즈 백신 GX-12 빠르면 7월 임상실험

국내 에이즈환자에 대한 치료백신의 임상실험이 빠르면 7월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를 이용해 에이즈 치료백신 GX-12를 개발한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성영철 교수 연구팀은 치료백신 실험계획서를 4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할 예정이며 식약청의 검토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쯤 임상 실험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GX-12의 국내 임상실험은 현재 우크라이나 키예프 전염병 연구소에서 GX-12의 임상 실험을 받고있는 에이즈 환자수(20명)보다 배나 많은 40~50명의 에이즈 환자가 대상이 돼 기존의 에이즈 치료제와 치료백신을 혼합해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실험 기간은 2, 3년 소요된다. 성 교수팀이 개발한 GX-12 에이즈 치료 백신은 사람과 유전자 구조가 거의 일치하는 침팬지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입증됐으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에이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이 2년째 진행되고 있다.

(매일신문 4월 10일)

에이즈 안걸리는 특이여성 있다

일부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에이즈 면역체계를 갖고 있다는



7일 나왔다.

의과대학-치의학대학 연구팀은 대부분 여성의 핵심 세포들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증식·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예방의학-공중보건과 도널드 B. 로리아 박사는 1년부터 11년 동안 에이즈에 양성인 남성들과 보호기구 없이 성관계를 가진 여성 18명 가운데 1명만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말했다.

에이즈에 감염된 이 여성은 에이즈에 걸린 남성과 자주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진 뒤 9년 후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이들 여성의 혈액에서 채취해 면역세포 CD4와 CD8을 에이즈 바이러스와 각각 섞은 뒤 그 반응을 관찰했다. 그 결과 CD4 세포는 급속히 증식했으며 CD8 세포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3월 1일)

보건의료인교육 실시

본회 부산광역시회, 경상남도회는 3월 29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에이즈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을 시행했다.

항바이러스 내성검사 시대의 도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도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내성 검사가 보편화되는 시대를 맞이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B형 및 C형 간염과 AIDS 치료제에 대한 내성 검사이다.

국내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제 복용후 내성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실태에 대한 첫 분자역학적인 보고가 울산의대 미생물학교실 조영걸 교수 등에 의해 미국 미생물학회 공식잡지인 J Clinical Microbiology 4월호(40권 4호 1319-1325, 2002)에 게재되었다. B형간염에 대한 보고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지난해 J Hepatology에 보고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1991년부터 첫 에이즈치료제로 시판된 지도부딘(Zidovudine)이 널리 사용되어 왔고 이후 1997년부터는 3가지 병용요법(소위 콕테일요법)이 도입되어 환자들의 수명을 크게 연장시키고 있다. 지난해만도 약 10억의 치료비가 정부예산으로 지출되는 등 정부에서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환자수의 급증으로(참고로 지난해에만 333명의 신환이 등록됨) 장차 폭발적인 예산증가가 예상된다. 그런데 이미 치료를 받기 시작하지 오래된 많은 환자들에서는 내성이 발현되어 치료효과를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음을 처음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총 35명의 환자를 5년 이상에 걸쳐 HIV 역전사효소 유전자를 분석하여 28명(80%)이 적어도 1개 이상의 내성 돌연변이를 가졌으며 이들 중 37% (13명은 치료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망하였다. 가장 흔한 돌연변이는 코돈 70, 215, 67, 219, 69, 41 및 210 순서였다) 각각 58%, 36%, 36%, 27%, 24%, 21% 및 12%). 바이덱스(Didanosine) 및 라미부딘(3TC)에 대한 내성은 각각 14.2%와 57%로 라미부딘에 대한 내성이 가장 빨리 나타났다. 특히 T69N/S/A라는 새로운 내성 돌

연변이가 지도부딘에 대한 제7의 내성돌연변이이며 이는 지도부딘 복용 후 평균 48개월 후에 갑자기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이는 CD4+ T세포 수 감소를 동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5년에 걸친 내성빈도에 대한 조사로는 외국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특히 외국에서 15-20% 빈도로 관찰되는 다제내성 돌연변이는 아직 전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상자 중 32명이 고려홍삼을 함께 평균 32개월 복용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이가 최근에는 단백질분해억제제에 대해 5곳 이상에서 내성돌연변이를 갖는 바이러스도 27%에서 조사되는 등 치료실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내성발현을 최대한 억제하고 치료제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치료시작 시점을 신중히 해야한다 (교과서적으로는 시작 기준이 CD4+ T 세포수 350이하이거나 바이러스 RNA copy농도 35,000 이상임). 둘째로 치료를 시작하였으면 환자들 스스로가 처방전에 따라 95% 이상으로 철저히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셋째로 임상외가 판단하여 내성이 의심되면 내성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진국에서는 내성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있어 처음 감염된 환자의 경우도 높은 빈도로 내성바이러스가 탐지되므로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내성검사성적을 바탕으로 가장 감수성이 높은 치료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전남대 원영호, 전북대 김대근, 카톨릭대 김운원, 서울중앙병원 우준희 교수 등이 참가하여 전국 규모로 실시된 공동연구결과였다. 치료제를 복용한 지 24개월 이상된 환자들에게는 상담 및 면역 검사 후 필요성이 임상적으로 인정되면 검사를 실시해준다.



이날 행사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부산지역에이즈실태와 관리방향을 비롯, 최신 치료경

향, 의료인의 감염관리에 관한 특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에이즈 정복 한발 앞으로

최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에이즈학회는 첨단 에이즈치료제의 경연장이었다. 이 중 가장 주목받은 치료제는 T20. 1998년 미국의 제약회사 트라이머리스에서 개발한 T20의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된 것.

임상시험엔 71명의 감염자가 1년 동안 참여했다. 이 결과 기존 치료법인 콕테일(약제 혼합)요법은 혈액 중 에이즈 바이러스 감소 폭이 74분의 1이었던 반면 T20은 4백 16분의 1이었다. 콕테일 요법보다 6배 가까이 바이러스 양을 줄인 것. 면역력의 지표가 되는 림프구도 콕테일 요법은 혈액당 평균 90개가 증가한 반면 T20은 1백47개나 증가했다. 주사 부위가 붓고 아파 도중에 접종을 중단한 3명을 제외하곤 특별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백명의 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대규모 임상시험(3단계)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재현된다면 이르면 연말께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공인을 받아 시판될 수 있리라 전망이다. T20은 내성을 보이는 감염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크릭시란 등 3~4개의 약제를 하루 수십알씩 복용해야 하는 콕테일 요법 대신 한가지 약만을 투여해도 충분하다는 것도 T20의 장점이다.

단점이라면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주사처럼 매일 두 차례 주사를 해야 한다는 정도다. (중앙일보 3월 5일)

“흡혈파리가 에이즈 옮길수도”

마구간 파리를 비롯한 흡혈파리들이 침팬지나 원숭이 같은 유인원에서 인간들로 에이즈 바이러스(HIV)를 전파시킨 매개체일 가능성이 있다는 독일 연구진들의 보고서가 나왔다. 그동안 많은 에이즈 연구원들은 HIV가 20세기 초반 중간 장벽을 뛰어넘는 동물성 바이러스로 체팬지와 원숭이가 HIV를 전파시킨 매개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해 왔다.

그러나 독일 프라이베르크 대학의 게르하르트 브란트너 박사와 본 대학의 베르너클로프트 박사,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만프레트 아이젠 박사 등은 16일자 영국의 과학주간지 ‘뉴 사이언스’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학설을 제기했다.

연구진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침팬지 등의 피를 빨아들이는 흡혈파리들이 다시 사람의 피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HIV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흡혈파리들은 사람의 피부에 상처를 내 피를 빨아들이는 뒤 다시 이 피의 일부를 사람 피부속에 내뿜는데 이 피가 상처에 필 경우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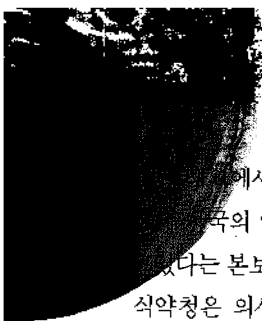
(세계일보 3월 15일)

노벨의학상 밀스테인박사 사망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분자생물학자 세사르 밀스테인(74) 박사가 24일 사망했다고 케임브리지 대학이 25일 발표했다. 밀스테인 박사는 독일의 게오르게스 켈러 박사와 함께 오늘날 암치료 및 에이즈 진단 등에 이용되는 단일클론항체를 생산하는 원리를 개발, 1984년 노벨의학상을 받았다. (런던=APAFP 연합)

이식용 피부등 조직검사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기증한 사체에서 적출한 뼈와 피부, 인대 등 인체조직 이식 재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체이식재 안전관리방안’ 초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에서 에이즈(AIDS) 등에 감염된 인체조직이
 식품의 안전성 검사 없이 일선 병·의원에 유통
 되었다는 본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국조
 직은행연합회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올 상반기 안에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인체이식재 안전관리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우수조직품질관리기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초안에
 는 인체조직 이식재료의 수입과 기증·채취·저장·처
 리·보관·분배 등 인체조직의 안전관리와 이를 관리하
 는 조직은행의 임무 등을 담고 있다. (대한매일 4월 10일)

중국인 에이즈 환자 85만명

중국인 약 85만명이 지난해 말 현재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
 다. 이는 종전의 공식 추정치인 60만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신화통신은 국영 질병통제예방센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에이즈에 완전히 걸린 사람들은 20만명에 달
 했을지 모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믿고 있
 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외국 보건 전문가들
 의 추정치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유엔은 150만명 가량
 의 중국인들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믿고
 있다. (매일신문 4월 12일)

주사감염 년 130만명 조기사망

비위생적인 주사행위로 인한 B.C형 간염 및 에이즈바이
 러스(HIV) 등 주요 질병의 만성적 감염이 연간 130만명
 의 조기사망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세계보건기
 구(WHO)가 10일 밝혔다.

WHO는 이날 관보를 통해 주사의 오·남용 폐해를 지
 적하면서 주사감염에 따른 인적 손실이 2천600만 수명시
 간에 달하고 직접적인 의료비용만 5억3천500만 달러로
 추산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WHO에 따르면, 비위생적 주사행위로 인한
 개도국과 옛 동구권 지역의 B형 간염감염자는 매년 2천
 170만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신규 B형 감염자
 의 33%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C형 간염의 경우 신

규 감염자의 42%에 달하는 200만명이 주사감염자이며
 HIV는 9만6천명으로 전체 신규 감염자의 약 2%를 차지
 하고 있다. (매일신문 4월 11일)

태국, 에이즈치료 복합제 세계 최저가 판매

태국 보건당국은 22일 에이즈 치료제를 하루 1달러 미만
 의 세계 최저가로 4월 초부터 발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정부제약청(GPO)은 에이즈 유발 바이러스인 HIV
 감염 환자 수십만명을 도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항레트
 로바이러스(ARV) ‘복합제제’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GPO-VIR로 명명된 이 복합약은 인체의 HIV 생성을 억제
 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타부딘, 라미부딘, 네비라핀을 혼
 합한 약이다. 통차이 타비차차르트 GPO 청장은 지난 18
 일 GPO-VIR 12만정을 생산하는데 성공했으며 4월 초
 GPO 6개 매장에서 이를 첫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
 고 “1정당 20바트(46센트)에 값이 매겨졌으며 이는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보건부는 하루 적정량은 2정으로 한달이면 1천200
 바트(27달러)에 불과해 에이즈치료비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3월 23일)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2002년 5-6월)

강순희	10,000	박은진	10,000	정미화	10,000
강연황	10,000	박인혜	20,000	정임교	10,000
강춘지	10,000	박호근	100,000	조미경	10,000
권순주	10,000	백인숙	10,000	조인재	28,000
김금재	10,000	성환철	10,000	진순혜	10,000
김남교	10,000	송종호	10,000	진정남	10,000
김매자	10,000	신순아	10,000	차민자	10,000
김명자	10,000	심치선	100,000	최분경	10,000
김미옥	10,000	안미남	10,000	최인옥	10,000
김선경	1,000,000	우성희	10,000	최정석	10,000
김선혁	10,000	유금숙	20,000	함유식	10,000
김수진	10,000	윤성현	5,000	허연숙	10,000
김양희	10,000	이경숙	10,000	단체회원	
김영실	10,000	이남주	10,000	성기복지병원	100,000
김영웅	10,000	이두연	10,000	(주)에스디	100,000
김정화	10,000	이만식	10,000	(부산)	
김철부	30,000	이윤진	10,000	김진호	20,000
김철유	10,000	이외선	10,000	김형길	10,000
김효열	50,000	이춘자	10,000	김경희	10,000
김희정	10,000	이혜민	10,000	박원주	150,000
박돌선	10,000	이희경	10,000	이만희	10,000
박삼운	50,000	임차호	10,000	장희경	100,000
박영선	10,000	정진운	10,000		
박은숙	94,500	전미선	10,000		